

악성 민원에 공사 차질... 입주 예정자들은 '피눈물'

화정 아이파크 철거 공사 지연에 현수막 내걸고 대책 촉구 “서구청, 지나친 민원에 끌려 다니지 말고 강경 대응해야”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과도한 민원으로 철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는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부에서 무리한 민원제기로 철거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관할 광주시 서구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및 재시공 현장 인근에는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20여개가 게시됐다. 현수막은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와 인근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반복·악성 민원은 안전한 공사를 방해한다', '살 집을 잃은 입주예정자들이 피해자다', '공사가 하루만 지연돼도 피가 마른다'는 등 문구가 적혔다.

'주변 민원 핑계대며 공사를 지연하는 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한다', '악성 민원에 전전긍긍하는 서구는 소극행정 각성하라', '서구는 강력한 대응으로 악성 민원을 근절시켜달라'는 등 내용도 담겼다.

예비 입주자들은 서구청사 일대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

예비입주자들은 “최근 일부 주민들이 철거현장 인근에서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반대(광주일보 12월 1일자 6면)하는 등 행태에 반발해 현수막을 걸었다”고 밝혔다.

최근 화정아이파크 인근에 있는 광주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철거현장 인근 이면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서구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는 “복지관이 알아서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고 책임을 돌렸고, 복지관은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했다.

지난 9월에는 일부 주민들이 철거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복귀하려던 공무원을 수습여분 동안 제지하고, 주민 안전통행로 설치 공사 현장에 차량 한 대를 ‘알박기 주차’해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표는 “현대산업개발의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상인들이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미뤄지면 예비입주자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구도 악성 민원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작업중지, 공사중지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현장 인근 보행로에 '악성 민원을 근절시켜달라'는 금호하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화정아이파크 일대는 서구의 타 현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과 기업의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공사가 지연돼 준공이 늦어지는 것은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의 주민, 상인, 광주

시민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201동 건설 현장에서는 짓고 있던 건물 23-38층이 붕괴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현대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6일 현재 화정아이파

크 붕괴 사고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상가 87곳 중 80곳은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월 미합의 상가 7곳(6명)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선대, 고(故) 정선엽 병장에 명예졸업장 수여한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조명...군 복무 중 12·12로 '희생'

조선대학교가 12·12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 병커를 지키다 희생된 고(故) 정선엽(당시 23세·사진)(광주일보 12월 1일자 7면)에게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 중이다.

반란군을 막기 위해 최후까지 저항한 정 병장이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재조명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조선대는 6일 정 병장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해 유족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 후반 부에서 육군본부 B-2병커를 지키던 '조만남'(가명) 병장의 실존 인물이 정 병장이다.

정 병장은 1956년생으로 동신고를 졸업하고 1977년 조선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했다. 제대를 석달 남겨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신군부 주요 인물인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지휘하는 공수부대 병력이 병커를 점령하려 오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총에 맞아 전사했다. 영화에서 정 병장이 숨진 곳으



로 촬영된 장소도 조선대 본관 뒤편 지하대피소(광주일보 11월 20일자 16면)다. 조선대 관계자는 “반란군을 막기 위해 스러져간 정선엽 병장의 참된 군인 정신을 기리고자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란군에 저항한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정우성 배우)의 모티브인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도 1958년 조선대 법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후 옥암지구 이전 추진

목포시의 원도심에 있는 공립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통합 이전이 추진된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목포시는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옥암지구에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1950년 개교한 목포고와 1944년 문을 연 목포여

고는 한때 학생 수가 2000여명을 넘었으나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교생 수가 각각 400여명으로 줄었다.

목포 원도심에는 고교 13곳이 몰려 있지만, 신도시인 옥암지구에는 고교가 1곳도 없어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목포시와 협의에 나섰다.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목포고는 87%, 목포여고는 86%가 이전에 찬성했다. 목포시도 옥암지구 시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목포시는 오는 13일 통합 이전 재배치 업무 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통합 이전에 착수한다. 통합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8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계속 운행해야”

시민 65% 운행 중단 반대...철도노조 “대체 차량 투입” 주장

광주시가 오는 18일부터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운영을 중단하기로 발표했지만 광주시민 65%는 계속 운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철도노조조합 호남지역본부(노조)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주송정역 대합실 방문객 763명 중 65%가 운행중단에 반대사를 밝혔다.

셔틀열차 이용객 1056명 중 96%는 셔틀열차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셔틀열차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이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4%에 달했다. 이어 ‘역 주변 도로가 혼잡하다’가 42%, ‘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가 38%순이다.

고속열차를 타러 광주송정역으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수단(복수응답)으로는 택시와 자가용이 44%, 지하철이 25%, 시내버스가 15%, 셔틀열차 12%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오전 광주송정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열차 운행 중단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하

라”고 주장했다.

셔틀열차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21년 407명, 2022년 522명, 2023년 600여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광주시는 열차 노후화를 이유로 운영중단을 발표했다.

노조는 “차량 노후화가 이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때문이다”면서 “지역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교통을 안전한 교통정책과 예산타당으로 폐지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광주선의 중간역인 극락강역에 2-3개의 간이역이나 승하차장을 추가해 도시철도화하고 운행간격을 줄여 환승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공공 교통수단을 수익논리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대체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광주송정역으로 일원화되면서 광주시는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요금 1000원)를 2016년 12월부터 운행해왔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